

지단 “어머니·누이 모욕했다”

프랑스 축구 스타 지네딘 지단(34·레알 마드리드)이 2006 독일 월드컵 결승 ‘박치기 반칙 사건’에 대해 해명을 했지만 공금증이 속시원히 풀리지 않고 있다.

반칙을 유발한 이탈리아 수비수 마르코 마테라치(33·인터밀란)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단은 13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TV 카날 플뤼스와 회견에서 “마테라치가 몇 차례 나의 셔츠를 잡아 당겨 ‘셔츠를 원한다면 경기가 끝난 뒤 교환할 수 있다’고 하자 나의 어머니와 누이에 대해 매우 거친 말을 했다”고 말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진상 조사를 위한 청문회에도 나갈 준비가 돼 있고 결과에 자신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마테라치가 그의 가족을 향해 한 말이 구

프랑스 TV와 회견서 밝혀

“FIFA 청문회 나갈 준비됐다”

마테라치, 정확한 표현 함구

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 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마테라치가 알제리 이민자 2세인 자신을 이슬람 테러리스트로 불렀다는 일부 소문도 부인, 인종 차별적 발언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테라치는 지단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인종차별적, 종교적, 정치적 발언이나 어머니와 관련된 욕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테라치는 “내가 한 욕은 그라운드 위에서 혼

히 들을 수 있는 것이어서 가끔은 그게 욕인지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것”이라면서도 역시 정확히 어떤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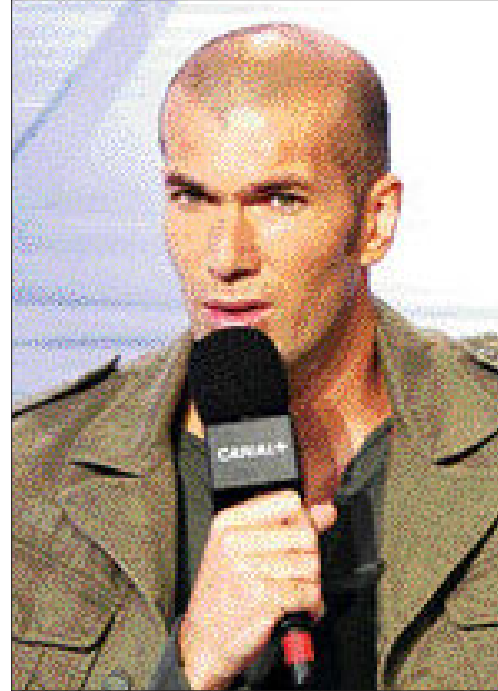
마테라치가 지단에 한 구체적 인 말이 무엇인지가 밝혀져야 징계 대상과 그 수위도 결정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마테라치가 지단의 어머니나 여동생을 매춘부라고 부르는 등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면서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저속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월드컵 이후 독화술 전문가의 분석 등을 바탕으로 한 의신 보도들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6월10일 베를린월드컵경기장에서 마테라치가 지단에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는 결국 FIFA 청문회가 열려야만 속속들이 드러날 수 있게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단이 13일 프랑스 TV 카날 플뤼스와 회견을 통해 월드컵 결승전 때 박치기 반칙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단 어머니 분노 폭발

2006 독일 월드컵축구 결승에서 박치기 반칙으로 물의를 일으킨 프랑스 축구 스타 지네딘 지단(34·레알 마드리드)의 어머니가 이탈리아 수비수 마르코 마테라치에 대한 분노를 폭발했다.

영국의 ‘데일리 미러’ 인터넷판은 13일 지단이 인터뷰를 통해 당시 마테라치가 자신의 어머니와 누이를 모욕하는 심한 말을 하는데 격분해 그런 행동이 유발됐다고 밝히자 그의 어머니 마리카 지단은 “마테라치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면 그의 고환을 잘라내 버리고 싶다”며 화를 삭이지 못했다고 전했다.

신병 치료 중인 알제리 출신 마리카는 친구들에게 “내가 들은 내용에 정말 진저리가 난다”면서 “가족의 명예를 지키려 했던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또 “그 어느 누구도 경기장 안팎에서 그런 모욕을 당해서는 안된다”면서 “우리 가족 모두 퇴장으로 지단의 선수 인생이 끝난 것에 매우 슬퍼하고 있다. 하지만 지단은 최소한의 명예를 지켰다. 세상에는 축구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김진우 ‘화려한 복귀’

부상 회복...12일 LG전서 쾌투

201닝 무실점 최고구속 152km

마운드 로테이션 큰 활력

KIA타이거즈의 ‘토종 에이스’ 김진우(23)가 48일간의 부상 투혼 끝에 믿음직한 모습으로 그라운드에 복귀했다.

김진우는 지난 12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LG와 경기에서 팀이 12-1로 크게 앞선 8회 초 선발 그라운드수비를 구원 등 관해 2이닝 동안 삼진 1개를 결투어 무안타, 무실점으로 복귀 점점을 마쳤다.

직구는 올 시즌 가장 빠른 시속인 152km까지 찍혔고 슬라이더 등 변화구의 제구력도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 5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롯데와 경기에 등판한 뒤 48일만에 1군 무대에서 화려한 부활쇼를 펼친 것.

2002년 입단 후 처음으로 지난 겨울 전지훈련 일정을 100% 소화한 김진우는 올 시즌 초 ‘병가 재건’을 외치는 KIA의 가



소흥근(어깨와 가슴 사이의 근육) 통증으로 2군에 내려갔고 KIA 마운드는 선발 로테이션이 구멍으로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믿음직한 ‘미들맨’ 정원과 선발 강철민의 부상 강등에 이어 ‘10억팔’ 한기주마저 컨트론타난조로 2군으로 추락하면서 KIA 마운드는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

KIA는 결국 주전 마무리였던 장문석을 선발로 내세우고 2년차 윤석민을 마무리로 바꾸는 등 극약 처방을 내놓았고, 마운드의 안정감도 크게 떨어졌다.

다행히 2군에서 철저한 재활훈련을 통해 1군으로 복귀한 김진우가 부활투를 선보임에 따라 KIA 마운드의 새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우는 오는 15일이나 16일부터 그라운드수비, 전병두, 장문석 등으로 짜여진 선발진에 본격 합류할 예정이다.

서정환 KIA 감독은 “(김)진우가 너무 많이 경기를 비워 제구력 등에서 열려진 부분도 있었으나 생각보다 볼 스피드도 좋았고 제구력도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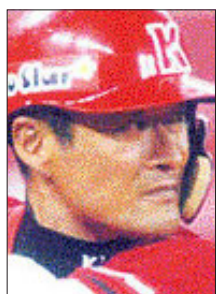
이종범·김종국 KIA 올스타 김상훈·이용규

〈베스트 10〉

〈감독 추천〉

“용규하고 상훈이 추가요”

‘안타왕’ 이용규와 ‘안방마님’ 김상훈이 선배 이종범, 김종국(이상 KIA)과 함께 올스타전 무대를 밟는다.



〈이종범〉



〈김종국〉



〈김상훈〉



〈이용규〉

대)이 뽑혔다. 이 중 동군의 정대현, 랜들, 이혜천, 이종욱, 장원준과 서군의 이용규, 류현진, 심수창, 박준수, 장원삼, 권용관, 이택근 등 총 12명은 최초로 올스타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동군 선동열 감독과 서군 김인식 감독이 추천한 올스타전 감독추천선수 2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로써 전날 공개된 이종범, 김종국 등 양팀 ‘베스트10’ 20명을 포함해 출전 선수 40명의 선정이 모두 끝났다.

동군에서는 오승환, 진갑용, 박한이(이상 삼성), 랜들, 이혜천, 손시현, 이종욱(이상 두산), 정대현(SK), 장원준, 박기혁(이상 롯데)이 추천받았다.

서군에서는 김상훈, 이용규(이상 KIA), 류현진(한화), 심수창 권용관(LG), 박준수 장원삼, 켈러웨이 정성훈 이택근(이상 현

전 무대를 밟는 기쁨을 맛보게 됐다.

전날 ‘베스트10’에 포함됐던 조동찬(삼성)을 합하면 이번 올스타전은 처녀 출전자만 13명에 이른다.

올 시즌 신인왕 후보인 한화 류현진과 현대 장원삼은 신인 투수로서 유일하게 서군 올스타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시즌 초 신인왕 후보 ‘0순위’였던 ‘10억팔’ 한기주(KIA)의 부진이 아쉬운 대목이다.

한편 2006 삼성 PAVV 프로야구 올스타전은 오는 22일 오후 6시 잠실야구장에서 열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재승 15일·찬호 16일·병현 18일 등판

올스타 휴식기를 마친 박찬호(33·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서재응(29·탬파베이 데블레이스), 김병현(27·콜로라도 로키스) 등 코리안 메이저리거 3인방이 15일부터 후반기 스타트를 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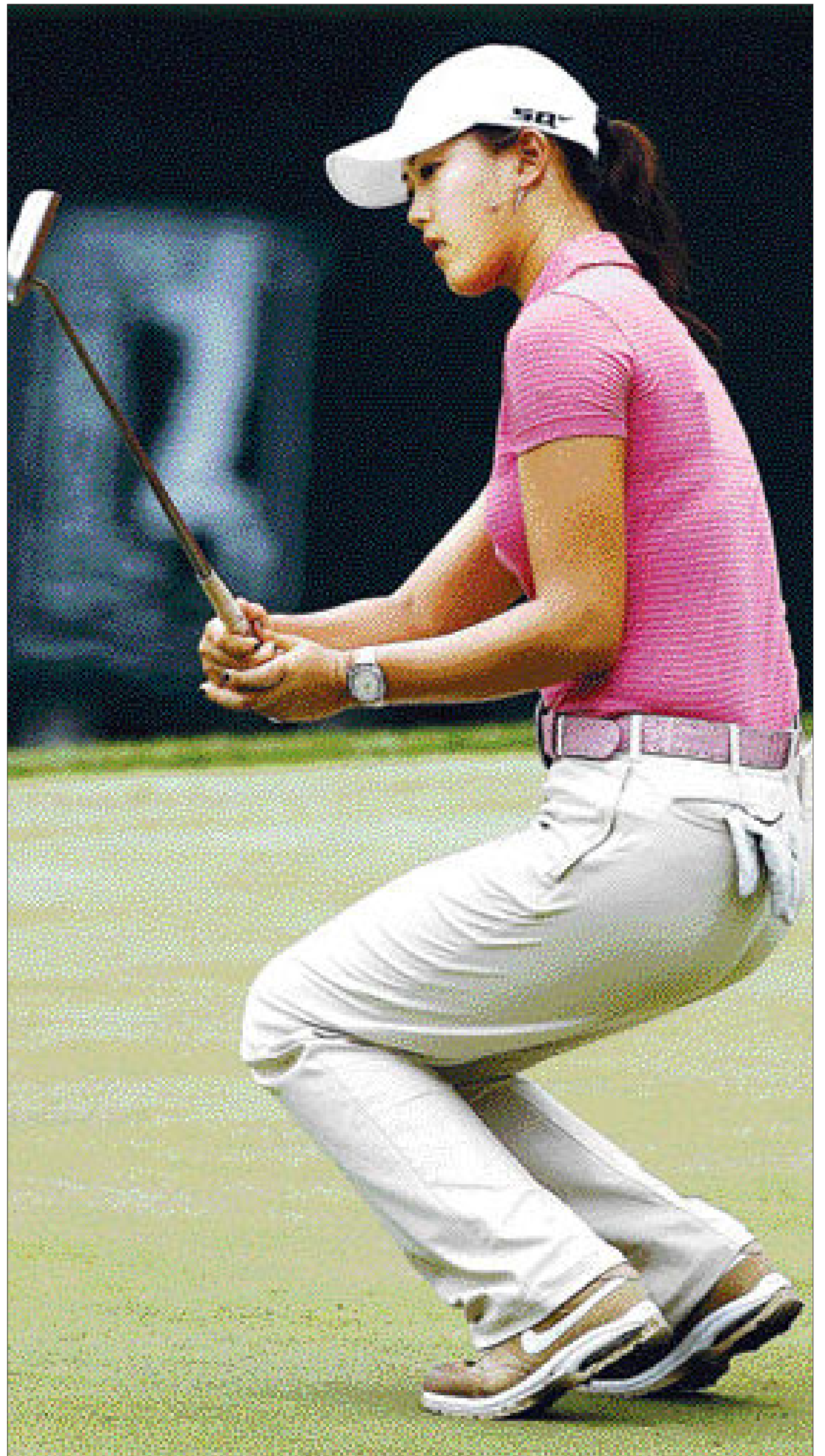
전반기 막판 LA 다저스에서 아메리칸리그 탬파베이로 이적한 서재응이 첫 주자로 나선다. 서재응은 15일 오전 11시5분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시 에인절스타디움에서 벌여지는 LA 에인절스 오브 애너하임전에 선

발등관한다.

이어 박찬호는 16일 오전 11시5분 펠코파크에서 열리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홈경기 후반기 첫 선발로 출격한다.

김병현은 이를 후인 18일 오전 8시5분 피츠버그 PNC 파크에서 피츠버그 파이리츠를 상대로 방문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번엔 꼭 PGA 컷통과”

PGA 컷 통과에 다섯번째 도전하는 위성미가 13일 미국에서 열린 존디어클래식 프로입대회 18번홀에서 퍼팅 실수를 한 후 아쉬워 하고 있다. /연합뉴스